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과 군사력 수준 변화 연구: 세력균형이론에 기초한 2030년경의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전망

김명수*

- I. 서론
- II. 세력균형과 군사력 수준의 상관관계 고찰
- III.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과 군사력 건설
- IV. 미래 동북아시아 세력균형과 군사력 수준
- V. 결론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현실주의의 대표적 이론인 세력균형이론을 기초로 군사력을 국가의 핵심 힘으로 전제하여 동북아시아의 힘의 분포를 살펴본다. 이전 세력균형과 군사력 수준에 관한 연구결과를 고찰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활용하여 2020년까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과 북한의 힘의 변화를 분석하여 2030년경 안보환경을 전망하여 본다.

세력균형이론에서 국가(nation)나 국가군(a group of power) 간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전쟁 가능성이 높고, 그 불확실성과 불신이 높은 국제사회에서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는 힘의 증강(자조, self-help)과 더불어 협력(cooperation)과 동맹(alliance)을 더욱 강화하는 행동을 한다고 본다.

동북아시아의 국가들도 자국의 군사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국제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주변 국가들은 촉각을 세우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30년대 중국 창군 100주년과 더불어 '국방 및 군현대화'를 실현하고, 2050년대 건국 100주년에 '세계일류군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동맹 강화 등 중국 견제에 분주하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과 힘의 역학관계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 세력균형이론에 기초하여 2030년 이후 동북아시아의 힘의 분포 변화와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세력균형, 힘의 균형, 군사력, 국방비, 육군, 해군, 공군

* 정치학 박사, e-mail: nms43kr@gmail.com

I. 서론

2021년은 "America First!"가 세상의 화두가 되었던 다소 혼돈의 시기가 지나 새로운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American is back! Diplomacy is back!"을 주장하며, 국제적 리더십의 회복과 민주주의 가치체계에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 천명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EU, NATO, G7, D10, QUAD 등 다양한 국가 및 협력기구와 외교 행보를 통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하고 있다. 달라진 국제환경의 변화에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반미국·서방 연대세력을 구축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유일의 패권국으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하던 미국이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에 신속한 독자적 대응의 한계와 힘에 버거운 듯한 뉘앙스 속에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하여 '동맹과 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폭풍 속에 인도-태평양에 더욱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이 1번 항공모함 진수를 시작으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까지 건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상륙강습함의 취역 등 군사력 강화와 군사활동 확대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힘을 분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가들은 미국과 지역패권과 세계패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2020년도 전 세계의 국방비는 3.9%가 증가했고, 미국의 국방비가 6.3%, 중국이 5.2%가 증가하며, 두 국가의 국방비가 전 세계 국방비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 그리고 미국은 연례위협평가보고서(Annual Threat Assessment)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위협으로 명시하였다.²⁾ 이렇듯 미국은 중국의 부상 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중국이라는 경쟁자(competitor)의 영향력(influence) 확대 저지와 국제규범의 손상과 파괴를 국제적 협력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였다.

다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한국도 2005년 “국방개혁2020” 추진 법률을 제정하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8월에 “국방개혁2.0”을 발표하며, 다시 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시작전권을 인수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로 전환과 더불어 3군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³⁾ 군병력

1) IIS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www.iiss.org (검색일: 2021. 7.20.)

2) DNI,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www.dni.gov (검색일: 2021.8.20.)

3) 국방부, “국방개혁2.0 강안군대 책임국방 구현” 『국방소식』, 2018.7.27., www.mnd.go.kr (검색일: 2021. 4.20.)

을 60만에서 50만으로 줄이며 병력중심에서 첨단화되고 기동화된 과학화 군으로 변모를 추진하는데, 많은 국민은 미래 안보환경에서 북한과 주변국의 변화에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서 현실주의의 대표적 이론인 세력균형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여 본다. 세력균형이론에서 국가들은 군사력 증강(internal balance), 동맹과 협력(external balance) 등 다양한 국가행동을 통하여 국가의 생존과 안전을 추구한다고 본다. 현재도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힘의 균형과 자국의 생존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물과 같이 끊임없이 행동하며 분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30년대 창군 100주년과 더불어 ‘국방 및 군현대화’를 실현하고, 2050년대 건국 100주년에 ‘세계일류군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2030년대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중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힘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게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세력균형과 군사력 수준의 상관관계 고찰

이번 연구의 기반이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2015년 발표된 논문⁴⁾에서 세력균형 이론과 군사력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국제사회는 ‘무정부상태(anarchy)’이며, 항상 ‘불신(distrust)’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 상존하는 사회로 개별 국가는 생존과 안전을 위한 수단이 필수적이며, 현실주의자들은 그 수단을 ‘힘(power)⁵⁾’이라고 본다. 현실주의의 대표적 이론으로 세력균형이론이며, 이 이론은 고전적 현실주의자인 모겐소(Hans J. Morgenthau)⁶⁾와 신현실주의의 태두인 월츠(Kenneth N. Waltz)⁷⁾의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발전하여 왔다.

특히, 월츠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 국가마다 그 능력이 다르고 힘의 분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힘의 균형’과 ‘균형의 유지’를 통하여 생존과 안전을 유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월츠 자신도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 때로는 두렵고 혼란스러운 용어라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 세력균형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

4) 김명수, “세력균형(power balance)에서의 군사력 수준과 동북아시아에 주는 함의,” 『STRATEGY21』, Vol.18 No.3,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5.; 김명수, “세력균형과 상대적 군사력 수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13.

5) ‘Power’에 대한 해석은 ‘힘’으로 또는 ‘국력’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힘’ 또는 ‘세력’ 등으로 사용

6) Hans J. Morgenthau Revised by Kenneth W. Thompson,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6th ed. (McGraw-Hill, Inc, 1985).

7)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는 개념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 역시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 균형은 존재할 수 있고, 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⁸⁾ 월츠의 개념 정립 이후 반 에베라(Stephen Van Evera),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스웰러(Randall L. Schweller), 왈트(Stephen M. Walt) 등 많은 학자들이 월츠의 이론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국제정치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와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힘의 균형에 대한 개념적 접근에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힘’과 ‘균형’과 같은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논의되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물리적 힘, 즉 군사력이라는 ‘힘’과 ‘균형’의 개념을 보다 수학적,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무정부적 국제질서에서 무력은 자기보존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세력균형의 핵심 요소인 군사력을 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수로 상정하여 군사력의 균형 또는 불균형에 따라 평화 또는 전쟁으로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세력균형이론을 역사적 사례에서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세력균형에서 ‘균형(balance)’의 개념을 이론상 ‘평형(equilibrium)’ 그리고 ‘안정(stability)’이란 의미로 해석한다. 균형(balance)이라는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로 과학적 의미는 ‘점(point)’ 개념이 아니라 ‘대등하다(even)’, ‘수준(정도, level) 또는 범위(range)’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통계학을 적용하여 상대적 군사력 수준을 분석했다. 국가의 군사력의 수준이 $B(\text{Balance}) \pm \alpha$ 의 균형범위(balance range)에 있으면 힘이 균형 상태이고, 이 상태를 벗어나면 힘의 균형이 깨지고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세력균형을 이루는 군사력 범위(range)를 전통적으로 군사력을 대표하는 육군의 병력수, 해군의 총톤수, 국방비를 군사력의 독립변수로 하여 그 단위를 표준화하여 동일한 기준의 평면(domain or plane)에서 각 국가의 군사력의 균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⁹⁾ 동일한 지표로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의 ‘표준값(Z)’을 이용하였다.¹⁰⁾ A, B 국가 군사력의 독립변수인 병력(명), 톤수

8) Kenneth N. Waltz, *Man,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Columbia University, 1959), pp.199-204.

9) 전통적 군사력 비교에서 국제적으로 병력, 톤수, 국방비 등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음. 더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고찰하고 있는 참고 논문을 참고.

10) R. E. Walpole, R. H. Myers, S. L. Myers, and K. Ye,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s and Scientists* 9th ed. (Pearson, 2012), p.172, 233.; G. Casella and R. L. Berger, *Statistical Inference* 2nd ed. (Duxbury, 2002), p.237. 통계전체 분야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연속확률분포는 정규분포이며, 많은 현상을 근사적으로 잘 설명한다. 만약 모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샘플링을 한다면 해당하는 샘플링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며, 이는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서 나온 결과임. 중심극한정리를 통해 어떠한 가정도 없이 출발하여 정규분포에 이르게 되며, 항상 가장 먼저 개략적 계산을 위해 사용 가능함.

(Ton), 국방비(US \$)를 각각 비교하여 표준값(Z)으로 변환하여 국가 간의 군사력을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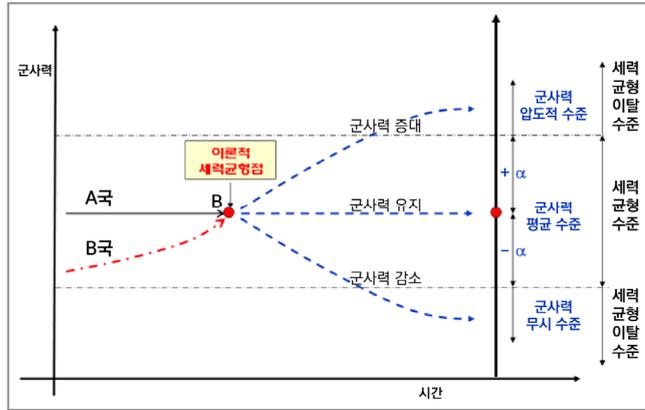
이러한 방법으로 제1, 2차 세계대전, 냉전시기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상대적 군사력의 균형 범위가 전력(군사력)비(P) 평균 0.67(67%), 표준값(Z) 0.86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균형 군사력비(P)의 균형구간이 $B \pm 30.5\%$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력비(P)가 36.5~97.5%(구간 61%)가 균형수준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세력균형과 군사력의 상관관계를 개념적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리고 도출된 세력균형 범위를 이용하여 시대별 각 국가의 군사력 수준을 강대국, 중진국, 약소국으로 분류하였다. 제1,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영국을 추월한 독일의 군사력은 최강이었지만, 전반적인 기간을 볼 때는 중진국이었고,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한 국가는 영국, 러시아, 소련이었다. 이탈리아는 역사가들이 지적하였듯이 무시수준의 약소국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냉전시기 강대국은 미국과 소련, 중진국은 중국, 한국과 일본은 약소국으로 분류되었다.

힘의 분포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삼국동맹국과 삼국협상국 간에는 1890년부터 균형은 깨졌고, 1907년 삼국협상이 성립된 시기에 군사력이 역전되어 더 심각한 불균형으로 전개되었으며, 이탈리아가 삼국협상으로 이동하는 1914년에 최고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주축국과 연합국 및 소련과는 1936~1937년에, 독일과 프랑스와는 1938년에, 독일과 영국은 1939년에 균형이 깨졌고, 일본과 미국은 1939년에 불균형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냉전시기는 미국과 소련이 1960~1970년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국가 간 및 협력체제 간 균형과 불균형 시점, 전쟁이 발발한 시점에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국가 간 균형 상태에서 협력체제의 균형이나 불균형에 관계없이 평화는 유지되었고, 국가 간 불균형 상태에서 협력체제도 불균형 상태이면 전쟁이 발생하는 공통된 현상을 보였다.

<그림 1> 세력균형과 군사력과의 개념적 상관관계



* 출처 : 김명수, “세력균형(power balance)에서의 군사력 수준과 동북아시아에 주는 함의,” P. 119.

그리고 해양을 경계로 한 국가보다 육지를 경계로 하는 국가 간의 불균형이 더 위험하고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국가 간의 군사력 불균형은 육군력에서 초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가 전쟁발생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하지만 제1, 2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과 독일, 냉전시기의 미국과 소련, 중국 등의 경우는 해양을 경계로 군사력의 불균형 상황에서도 직접적인 충돌은 발발하지 않았으며, 해양국가는 우세한 해군력을 유지하고, 대륙국가는 우세한 육군력을 보유함으로써 해군력과 육군력을 중심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연계 선상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의 군사력 변화를 세력균형이론에서 살펴본다. 특히, 2010년 이후 북한에 대한 군사력을 포함하고, 이전의 연구개념에 적용한 독립변수 육군의 병력수, 해군의 톤수, 국방비에 공군의 전투기 수를 추가하여 군사력을 분석하여 본다. 세력균형과 힘의 분포에 대하여 정성적인 연구결과는 많지만, 군사력을 종합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다.

III.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과 군사력 건설

아시아 미래 안보환경은 대부분 국가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해안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북극해에서는 경작지의 추가 생성과 석유 등 천연자원과 북극항로 등으로 국가이익에 대한 경쟁과 갈등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첨단기술의 발전은 미사일, 전투기, 함정 등 무기체계 성능을 더욱 고도화시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과 위험성은 더욱 증가되고, 경제는 과거 빠른 경제성장과는 달리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¹⁾

미국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국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하여 왔으나, 911테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질서, 위협, 전쟁의 형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변곡점이었다. 미국은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테러 조직 와해를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 제거작전을 수행하며, 재래식 전쟁(conventional war)보다 비정규전, 비전통적 군사적 위협에 집중하였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국제질서에 크게 개입하지 않으며 조용하고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군사력을 강화하여 왔다. 1980년대부터 추진해온 국방 현대화는 중국이 2010년을 지나면서 국제사회에 그 무게감이 현실로 나타나며,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이라는

11) Terrence K. Kelly, James Dobbins, David A. Shlapak, David C. Gompert, Eric Heginbotham, Peter Chalk, Lloyd Thrall, *The U.S. Army in Asia, 2030-2040* (RAND, 2014). pp. 3~11.

원대한 국가목표 아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에 새로운 힘의 부상을 현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의 ‘강력한 러시아의 재건’을 목표로 핵, 미사일 등 각종 전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맞서 미국의 동맹국임을 자처하며, 미국을 대신하여 아시아에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통국가로의 변화, 군사력 증강 및 반중국 연대에 앞장을 서고 있다. 특히, 아베 전총리가 주장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2018년 정식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미국과 적극적인 공조하에 QUAD 국가와 협력 강화, 유럽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구상’과 연계하여 유럽 국가와 연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북한은 남북군사합의 이후 긴장 상황이 지속되며, 북한 핵문제 해결과 회담은 진전이 없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되어 핵무기가 40~50개까지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²⁾ 국제사회의 불확실한 변화 속에 주변국과 북한의 위협이 예상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1. 미국

911테러 발생 이후 장기간의 대테러전은 오바마 정부의 국방정책에 걸림돌이 되었다.¹³⁾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말부터 아시아에 대한 개입(engagement)의지와 2012년 국방전략지침에서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력 재배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트럼프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 12. 18.)을 미국 우선주의에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 중국의 부상에 다소 등한시한 경향도 없지 않다.¹⁴⁾

중국은 2010년부터 6~12%의 GDP 성장과 5~10% 국방비 증가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며 세계가 두려워하는 국가로 변화되었고, 바이든정부에서는 2021 연례위협평가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제1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바이든정부 출범과 동시에 트럼프정부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D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재검토 및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별도 중국TF를 구성했다.¹⁵⁾

12) Elizabeth Shim, "North Korea could have 40~50 nuclear weapon, think tank says," (World news, 14 June 2021.), www.upi.com (검색일: 2021. 3.10.)

13) Department of Defenc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February, 2010)," pp. 12~15, www.defense.gov (검색일: 2020. 2.5.)

14) DO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ational Defense Strategy," www.defence.gov ; DOD, "Nuclear Posture Review 2018," www.media.defense.gov (검색일: 2021. 3.10.)

그리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2015. 10월 최초로 시작된 동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작전(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¹⁶과 대만해협 통과작전을 연 1회에서 횡수를 증가하고, 대만에 무기수출 등 군사협력과 외교적 친밀도도 더욱 증대하고 있다. 바이든대통령과 스가총리 정상회담에서도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에 포함됨을 재확약하고, 일본의 역내 역할자로서 지위를 확고히 지지하고 있다. 또한, QUAD 협력과 EU와 NATO에 대한 대중국 견제와 억제에 동참을 견인하며,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군사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파견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¹⁷에 따라 역내 준비태세 증강, 파트너십 강화, 지역 네트워크를 향상하고, 아프가니탄 미군 철수를 2021년에 마무리하고 인도-태평양에 집중하여 이 지역에 미군 전력의 60% 이상을 배치하여 중국에 대응할 예정이다.¹⁸ 그리고 군사력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다영역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 개념 하에 ‘역동적 전력전개(DFE, Dynamic Force Employment)’, ‘분산해양작전(DMO,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과 ‘원정전진기지작전(EABO, Expeditionary Advance Base Operations)’ 개념 등을 발전시키고 있다.¹⁹

미국의 군사력 유지와 증강을 위한 국방예산은 냉전 이후 1985년에 GDP 대비 5.7%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약 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부터 다시 증가시키고 있다. 2030년 전체 병력은 육군 11,500명의 증가를 포함하여 총 130만 명이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²⁰ 전투기는 2023년까지 F-35C/B 약 200대를 포함하여 650대 이상 확보하여 기존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²¹

15) ODNI, “2021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April 9, 2021),” www.dni.gov (검색일: 2021.5.29.)

16) Defense news, “In challenging China’s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the US Navy is getting more assertive (Feb 5, 2020),” www.defensenews.com (검색일: 2021. 6.20.)

17) Cleo Paskal, “Indo-Pacific strategies, perceptions and partnerships (23 March 2021),” www.chathamhouse.org (검색일: 2021. 8.14.)

18) USNI news, “Work: Sixty Percent of U.S. Navy and Air Force will be based in Pacific by 2020 (Sep 30, 2014),” www.news.usni.org ; Global Times, “China releases report on US military presence in Asia-Pacific, warns of increased conflict risk (Jun 21, 2020),” www.globaltimes.cn (검색일: 2021. 1.15.)

19) 강석윤, “동북아 안보정세분석(NASA),” KIDA, 2020. 911테러 이후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으로 2004년 부시정부에서 GD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이 채택되어 2018년 범세계적작전수행모델(Global Operating Model)로 발전하여 ‘전략적으로는 예측 가능하되, 작전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군사력을 운용하기 위하여 육군과 공군은 ‘역동적 전력전개(DFE, Dynamic Force Employment)’ 개념으로 해군, 해병대는 ‘분산해양작전(DMO,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과 ‘원정전진기지작전(EABO, Expeditionary Advance Base Operations)’ 개념으로 발전함.

20) CRS, “The FY2019 Defense Budget Request: An Overview (May 9, 2018),” www.fas.org (검색일: 2020. 9.20.)

그리고, 미해군 전력은 2016년 12월 FY2018 국방수권법상 355척의 함대 건설을 목표로 계획을 진행해 왔으나, 2019년 분산함대구조(distributed fleet architecture)로 변경하는 신개념을 구상하고 있다.²²⁾ 항공모함 등 대형함정 중심의 전력구조가 운용유지 비용도 많고, 중국의 A2AD 전략의 핵심 무기인 동평-26 등 극초음속 대함탄도미사일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형함대와 유령함대 혼합 구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22년도 예산으로는 2~4척의 함정 건조만이 가능한 제한되는 실정에서 계획대로 함정 건조 여부는 불확실하다.²³⁾

미국의 국방비 추이와 함정 건조계획 등을 고려 2030년에 미국의 군사력 수준은 국방비는 2011~2018년까지 GDP 대비 평균 3.5% 및 GDP 성장률 2.5%를 적용 약 8,400억 달러, 병력 135만, 주요 전투함 248척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중국

중국은 1980년대부터 군의 현대화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며,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급진적인 군사 대국화로 전환하고 있다. 냉전 이후 중국은 중심 깊은 대륙중심의 방어전략에서 해양력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방어전략으로 전환하면서 국가의 체질을 변경하고 있다.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 중국몽 실현을 위한 국가적 항해를 지속하고 있다.²⁴⁾ 중국군의 현대화와 개혁은 1991년 이라크 '사막의 폭풍작전'(침단 정보작전), 1999년 나토 코소보 작전(스텔스 침단무기 운용) 등에서 서구의 기술과학 기반의 전쟁을 보았고, 1996년 타이완 해협 위기에서 경협한 중국의 치욕과 군의 사기 저하는 새로운 군으로 변화를 각오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⁵⁾

2020년 공산당 19기 제5차 당대회에서도 국방 및 군대현대화 건설 3단계 계획 지속 추진을 확정하고, 1단계(2020년대)에 제1 열도선 억지 및 실전 능력을 완비하고, 2단계(2035년) '국방 및 군현대화 실현'과 아시아에서 군사력 선두를 확보하며, 최종적 3단계(2050년)에서 '세계일류군대건설'로 방어중심을 제3 열도선까지 원해작전능력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²⁶⁾

2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to congress on the Annual Long-Range Plan for Construction of Naval Vessels for FY2019," www.secnv.navy.mil (검색일: 2020. 9.12.)

22) Ronald O'Rourke, "Navy Force Structure and Shipbuilding Pla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RL32665, (21 Jun 2021)," p.9, www.crsreports.congr (검색일: 2021. 7.30.)

23) USNI news, "CNO Gilday: Flat or Declining Navy Budgets 'Will Definitely Shrink' the Fleet (Jun 15, 2021)." www.news.usni.org (검색일: 2021. 9.5.)

24) 해양전략연구소, 『2020~2021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전망』 (서울: 박영사, 2021.), pp. 72~74.

25) 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 (서울: 세종서적, 2018.),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2017.), pp. 192~207.

실질적인 군사력 개편은 2015년 시진핑이 지상군 병력 30만 감축을 선언한 이후 중국 내륙을 ‘지역방어군’ 체제에서 ‘전역작전 기동형부대’로 전환하여 중국을 7대 군구에서 5개 전구로 재편 및 연합 합동작전 지휘기구를 설립하여 다양한 군종의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지상군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하여 집단군-여단-대대로 작전지휘체계 간소화와 보병여단에 추가하여 기계화 여단, 항공 여단 등 기능화된 80여 개 이상의 여단을 창설하여 지역과 임무에 따라 적합한 합성여단을 작전부대로 편성하여 신속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²⁷⁾ 이와 같은 지휘체계와 작전운용개념의 변화는 미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A2AD 개념과 연계한 해군과 공군, 미사일 전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군사력을 강화해 왔다. 공군은 2020년 1,500대의 전투기 중 800대를 4세대 전투기로 운용 중이며, 향후 5세대 전투기 개발과 전투기 2,500대 이상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로켓군은 단거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동평(DF-26) 중거리탄도미사일은 3,000km 이상의 재래식 또는 핵무기를 탑재하고 지상표적뿐만 아니라 해상표적까지 타격 가능한 탄도미사일로 200기 이상을 보유하여 중국 연안 2,000km 이내에 위치한 지상기지와 항공모함을 위협하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중거리 폭격기의 성능향상으로 4,000km까지도 그 공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⁸⁾

중국의 해군력은 2000년도에 일본을, 2020년에 러시아를 추월하며, 미국 다음으로 해양강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의 변신을 위해 무서운 속도로 ‘해양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연 2척 이상의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을 건조하며 원해 작전능력을 구비하고, 9단선 내 도서와 암초에 14개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해양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2000년도 제1 열도선의 근해방어 전략에서 제2, 3 열도선의 지역, 원해전진방어전략으로 전환하며 전 세계로 작전범위를 넓히고 있다.²⁹⁾

중국 해군력 발전 전망을 2030년에 전투함만 300척 이상, 전체 함정은 400척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³⁰⁾ 미국은 중국이 향후 미국을 뛰어넘는 군사력 보유를

26)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s Republic of China 2020 (DOD, Sep 1, 2020.),” pp.30, 115~116, www.defense.gov (검색일: 2021.4.15.)

27) 국방부, 『202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0.), pp. 14~15.

28) Terrence K. Kelly, The U.S. Army in Asia, 2030-2040 (RAND, 2014.), pp.8~10.

29) 김강녕, “중국의 해양팽창정책과 한국해군의 대응방안” 『해양전략』 제178호 (대전: 합동군사대학, 2018.), p. 46.

30) Ronald O’Rourke, “Future Force Structure Requirements for the United States Navy (CSR, June 4, 2020.),” www.crsreports.congress.gov (검색일: 2021. 8.5.)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 전력의 건설에서도 그 목표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³¹⁾ 3~10%에 이르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GDP 대비 1.3%대의 국방비를 투입하고 액수의 증가율은 6.6~12.2%에 이르고 있다. 2021년 IISS 발표에 따르면 아시아 국방비의 43.2%가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2030년대 중국의 국방비는 약 3,500억 달러 이상, 전체 병력은 현대화 계획에 따라 30만 명을 감축한 200만 명을 유지하고, 전투기는 2,500대 이상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해군은 항모 5척을 포함하여 전체 400여 척 이상, 주요 전투함 260척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러시아

냉전시기 미국과 패권을 다투던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국가 위상이 다소 후퇴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군사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미국과 NATO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지아(Georgia)를 점령하는 등 러시아의 힘을 과시하고, 군사력 현대화와 신개념의 군사교리 발전 등 국가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평가다.³²⁾

2000년대 푸틴 집권과 더불어 '강한 러시아'와 '강대국 위상회복'을 지향하는 공세적 방어개념과 미래를 대비한 2020년 '북극전략'을 발표하며, 2035년을 목표로 북극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공고히 할 예정이다.³³⁾ 그리고 '국가 재무장 계획 2027('18~'27)³⁴⁾에 따라 항공우주분야와 군사력 현대화로 지상장비 개선, 군사기술 연구개발,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개발과 핵전력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다.³⁵⁾

러시아 육군은 병력 중심의 군에서 기술 집약형 군으로 개혁을 추진하며, 징집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 전문병의 규모를 증가하여 100만명 이하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는 군복무체제로 혁신하였다.³⁶⁾ 그리고 2015년에 전략 핵무기, 전투

31)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July 1, 2021) RL33153," p.10. www.crsreports.congress.gov (검색일: 2021.8.20.)

32) Heath A. Comley & Etc., "The Diversity of Russia's Military Power (Sep. 2020, CSIS)," pp.1~9. www.csis.com (검색일: 2021. 9.10.)

33) Ekaterina Klimenko, "Russia's new Arctic policy document signals continuity rather than change" (6 April 2020), www.sipri.org ; Atle Staalesen, "Putin signs Russia's new Arctic master plan (Mar 6, 2020)," www.arctictoday.com (검색일: 2021. 8.20.)

34) Chathamhouse, "Russia's New State Armament Programme Implications for the Russian Armed Forces and Military Capabilities to 2027 (May 2018)," www.chathamhouse.org (검색일: 2021. 9.1.)

35) 해양전략연구소, 『2020~2021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전망』, pp. 168~171.

기, 함정 및 잠수함, 방공망, 정보체계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10년 동안 7천억 달러 규모의 무기 근대화 계획을 추진하며, 국제유가가 50%까지 급락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근현대화 예산만은 줄이지 않았다.³⁷⁾

특히, 근현대화의 핵심인 극초음속미사일은 198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보다 앞선 기술우위를 확보하고, 미국의 MD체계 무력화 또는 Game Changer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재래식 또는 핵탄두를 탑재하고 마하 20으로 비행하는 아방가르드 ICBM을 '19년 말 실전 배치하였고, 함정 및 항공기에서 발사 가능한 '지르콘' 및 '킨잘' 탄도미사일(마하 10 이상)도 시험발사를 완료하고 실전 배치를 준비 중이다. 이와 더불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SU-57을 2010년부터 자체 개발하고 2020년부터 전력화를 진행 중이다.³⁸⁾

러시아 해군은 중국에 2020년 추월당했지만, 세계 제2위 해군력 위상 재탈환을 위해 과거 퇴역한 항공모함과 순양함의 개량 및 재취역,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 자율무인기 및 해상 로봇체계의 무기화, 핵잠수함의 건조 등 해상 전력건설에도 집중하고 있다. 2018년부터 러시아 유일의 에드미럴 쿠즈네초프(Admiral Kuznetsov) 항공모함 재취역을 위한 장기 수리를 진행하고 있고, 10만 톤급의 항모건조를 위한 설계를 추진 중이며 2019년 국제해양방위산업전(IMDS)에서 모형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2만 톤급 원자력추진 순양함 어드미럴 나히모프(Admiral Nakhimov)도 2022년 재취역을 위한 막바지 수리가 진행 중이다.³⁹⁾

러시아는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2000년대에 GDP 대비 2.5~4%(평균 3.3%)를 국방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GDP 성장률은 평균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⁴⁰⁾ 이러한 추이를 고려하여 볼 때 2030년경 국방비는 840억 달러, 전체병력은 100만 명 이하로 유지하고, 해군은 경항공모함과 헬기모함 4척을 포함하여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등 성능 개량과 증강으로 잠수함 70척 이상, 수상 전투함 80척 이상 등 총 160척 이상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일본

일본은 1,000해리 전수방어(專守防禦) 전략을 기본으로 국가안보와 방위정책이 발전되어왔다. 1990년 걸프전을 계기로 일본은 1992년 'PKO법안' 통과와 캄보디아에

36) Heath A. Comley & Etc., "The Diversity of Russia's Military Power," p. 17.

37) Russian-military, www.cfr.org (검색일: 2021. 9.17.).

38) 해양전략연구소, 『2020~2021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전망』, pp. 179~193.

39) ibid., p.183.

40) 외교부, "2018 러시아 개황," www.mofa.go.kr (검색일: 2021. 9.17.)

자위대 파견을 시작으로 군사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왔다. 2013년에는 중국의 부상, 그리고 북한 위협을 부각하며 ‘적극적 평화주의’를 국가안보전략에 명기하고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였다. 또한 자위대의 위상을 정규군으로 승격시켜 ‘보통국가’로 변신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GDP는 2000년 중국의 4배였으나 2010년 중국에 추월당하였고, 국방비에서도 2001년에 중국에 뒤지며 2020년에는 4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일본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고, 국가안전보장전략(2021.3.3.)에서 높은 수준의 국방비 증가와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⁴¹⁾ 이와 더불어 지상, 해상, 공중 및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다차원적 통합방위력 구축과 ‘영역횡단작전(Cross-Domain Operations)’ 실현을 위해 통합막료부의 능력을 보강하고, 평시부터 미국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통한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2012년 46,453억 엔에서 2020년 50,688억 엔으로 11% 이상을 증액하였으며, 향후 GDP의 1% 이상을 국방비로 투자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일본의 GDP 연평균 2% 이상 증가를 고려할 때 일본의 국방비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⁴²⁾

육상자위대는 지역책임방어에서 3개 기동사단과 4개 기동여단, 1개 기갑사단 등으로 기동성이 강화된 부대로 전환하고, MV-22 등 항공전력을 통한 공중기동 능력 강화와 수륙기동부대 창설을 통해 합동상륙작전능력을 향상시켜 원거리 이격된 도서지역에 대한 신속전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를 증대하여 적기지 타격 능력 확장과 F-15 전투기에도 탑재를 추진하고 있다.⁴³⁾

해상자위대는 이즈모급(Izumo) 헬기모함 2척을 전투기(F-35B) 탑재가 가능한 경항공모함으로 개조 중이며, 이지스 탑재함 2척을 추가 확보하여 10척 체제로 일본 전역을 365일 방호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주변 해역 경계 감시강화를 위한 구축함과 호위함 등 50척 이상 확보 및 초계함부대를 창설하고, 대해상 및 대잠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해상초계기(P-3) 70대 이상을 신형(P-1)으로 교체하여 약 190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잠수함은 현 22척 체제를 유지하며 수중작전 능력이 우수한 3,000톤급 잠수함으로 교체할 계획이다.⁴⁴⁾

41) IISS, ASIA-PACIFIC REGIONAL SECURITY ASSESSMENT 2021, p.31. :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 “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と在日米軍駐留経費負担の在り方 — 第204回国会(常会)における防衛論議の焦点-(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特別調査室, 21.7.30.),” www.sangiin.go.jp (검색일: 2021. 9.30.)

42) Terrence K. Kelly, James Dobbins, The U.S. Army in Asia, 2030-2040), pp. 6~7.: 윤완준, “中 군사력 확장에 日-호주-인도 맞불… 아시아 군비경쟁 불붙다” 『동아일보』, 2018.8.28. www.donga.com : 최서운, “아베, 11월 호주 방문해 자위대·호주군 협력 강화…내년 국방비 사상 최고” 『아시아투데이』, 2018.8.22. www.asiatoday.co.kr (검색일: 2021.9.28.)

43)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 ibid.

공군자위대는 스텔스 전투기(F-35) 147대와 공중급유기 4대 도입과 F-2 후속 전투기를 2020년대부터 개발하여 2035년에 차세대 전투기로 전환하여 290대 이상의 전투기와 무인기의 혼합 운용을 계획하고 있다.⁴⁵⁾ 그리고 우주작전대 신설('20.5.)과 우주기본법('20.6.) 개정을 통하여 우주작전 및 사이버작전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자위대는 최소 GDP 대비 1% 수준 이상의 국방비를 유지하며, 2030년경 일본의 국방비는 GDP 성장률 1.5% 고려 786억 달러, 병력은 25만 명 체제를 유지하고, 전투함은 헬기함모 4척, 잠수함 22척, 구축함 54척 등 주요 전투함 약 90척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5. 한국과 북한

한국 안보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수십 년 동안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을 추진하며, 한국군의 역할 증대와 군사력을 강화하여 왔다. 2000년 이후 국방비는 GDP의 2.5%(2020년 2.6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⁴⁶⁾

2020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고도화 등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이 복잡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⁴⁷⁾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개혁 2.0 기본계획'⁴⁸⁾을 추진하며, '정예화', '스마트화', '선진화'된 군으로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인수하여 한국 주도의 작전수행능력을 확보하고, 기존의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군의 체질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육군은 미래 11.8만 명 감축에 따라 '드론봇(drone-bot) 전투체계'와 '위리어플랫폼' 계획을 추진하여 전력을 보강하고, 공군은 '퀵텀 5.0'을 발표하며 미래 항공우주군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해군은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1~25 국방중기계획'⁴⁹⁾에 5년간 총 300조 7,000여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방위력개선비에 100조 1,000억 원이 투입

44) MOD(해상자위대), 2020 DEFENSE OF JAPAN (MOD, 2020), pp. 216~220.; 해양전략연구소, 『2020~2021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전망』, pp. 136~140.

45) 김주환, “中 군비확장 대응해 韓·日 항모확보 검토…F-35B 탑재” 『세계일보』, 2018.2.14. www.sedaily.com (검색일: 2021. 9.28.)

46)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289.

47) ibid., pp. 11~12.

48) 국방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국방개혁 2.0」: 국민과 함께합니다.』(서울: 국방부, 2019.).

49) 국방부, “'21-'25 국방중기계획 정책브리핑,” www.korea.kr (검색일: 2020. 10.20.)

될 예정이다.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 위성 확보 등 정보감시정찰 능력 확충, 미사일 탄두 중량 증가,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상·상륙작전 능력 강화를 위하여 경항모와 수직이착륙 전투기 확보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이지스함 추가 확보,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확보, 3,600~4,000톤급 잠수함 건조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F-35 전투기 추가 도입, F-16 성능 개량과 한국형 차기 전투기(KF-X)도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재정비하였으며, 이 시기에 확보한 전차, 항공기, 함정 등 다양한 재래식 무기체계들을 아직도 운영 중이기도 하다. 1990년대에는 특수작전능력 강화, 2000년대는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 집중하며, 지속된 경제난과 대규모 홍수 등 재해재난 상황에서도 GNP 대비 약 25% 이상(최대 37.9%)을 군사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⁰⁾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결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국가부채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항공기 1,300대, 전투함 430척, 상륙함 250척, 잠수함 70척, 탱크 4,300대, 단연장 로켓 발사기 5,500대, 미사일 1,000기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12~'20년까지 미사일 발사시험을 114번이나 실시했다('16년 최대 24회 실시).⁵¹⁾ 2020년 10월과 2021년 1월에 2차례에 걸친 열병식을 통하여 본 육·해·공군 전력은 재래식 무기체계의 대부분이 1960~1980년에 운영되는 장비를 개량하였고, SLBM, 이스칸데르미사일, 북극성 5호 등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국방비 대부분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⁵²⁾

하지만 북한의 대량 비대칭 무기체계, 다수 다량의 재래식 무기 보유는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능력은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래식 무기의 개량과 개발과 더불어 핵, SLBM, 잠수함 개발 등 비대칭, WMD 무기체계의 고도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50) 국방부, 『1996~1997 국방백서』, pp. 43~44. ; 『1997~1998 국방백서』, p.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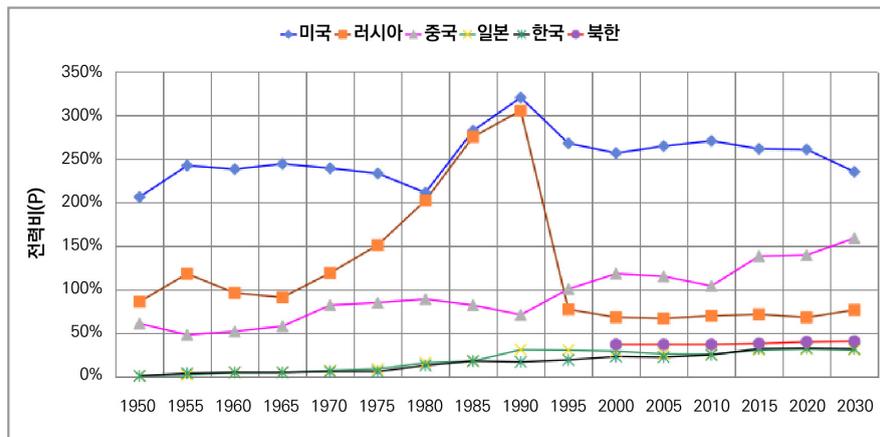
51) Eleanor Albert,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Nov. 16, 2020, Council Foreign Relations)," www.cfr.org (검색일: 2021. 8.15.). 미사일 발사시험 : '12년 2회, '13년 6회, '14년 19회, '15년 15회, '16년 24회, '17년 21회, '19년 18회, 20년 9회.

52) Liang Tuang Nah, "The Tactical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Military Modernization" (Jan 27, 2021), www.thediplomat.com (검색일: 2021. 3.18.)

IV. 미래 동북아시아 세력균형과 군사력 수준

앞 2장에서 살펴본 195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2020년까지의 추가자료의 분석, 2030년경의 각국의 군사력 전망을 종합하여 국가별 군사력 수준을 분석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의 군사력 수준(전력비, P)



* 세부 결과는 부록 1, 2 참조. 세부 국가별 군사력 자료와 분석자료는 붙임에 첨부하고, 분석 결과를 먼저 표시한 것은 본 연구의 핵심에 쉽게 접근 및 이해하기 위한. 북한은 2011년 이후부터 분석에 포함.

분석 대상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였으며, 힘의 균형을 위한 국가 간에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상대적 군사력은 중국만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 북한은 현상 유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30년대 군사력 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미국의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의 분포에서 압도적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며, 균형 수준의 군사력은 러시아, 무시 수준의 군사력은 한국, 일본, 북한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2030년대 중국의 전체 군사력은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의 격차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2040~2050년에 군사력의 전이 (military power transition)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미국이 과거 구소련과 같이 붕괴하거나 심각한 경제적 위기 등으로 현재의 군사력을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중국이 구소련처럼 단기간 내 급격한 군사력 증강으로 미국의 힘을 추월하기 위한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힘의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또한 과거 구소련이 1970년부터 20년 동안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다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구소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그 붕괴 원인을 신중히 철저히 분석했다.⁵³⁾ 고르바초프의 치명적 실수는 자국의 경제를 개혁하기 전에 사회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먼저 완화했고, 공산당의 부패를 방지했으며, 소련의 군대도 국가에 속한 것으로 만드는 오류를 범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시진핑은 사적 사치행위에 대하여 공산당원들에게 경고하고, 중국을 공고한 공산당 중심 체제로 변화시켰고, 군사개혁으로 군지휘관들은 당과 그 지도자에게 충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구소련의 붕괴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2001년에 일본의 국방비를, 2010년에 GDP를, 2015년에 해군력을 추월하였고, 2020년에는 러시아 해군력을 추월하며 점진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하고 있다.⁵⁴⁾ 과거 구소련의 군비경쟁 당시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 추이와 30년 동안 완만한 점증 추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중국이 2050년경을 '세계일류군대'를 목표로 향후 30년을 더 군사력을 증가시키면, 냉전시기 이후 30년을 포함하여 60년간을 꾸준한 국가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군사력을 건설하는 보기 드문 역사적 사례가 될 것이다.

미국도 냉전시기 40년 동안 구소련과 장기간 군비경쟁에서 한 국가를 붕괴시키며 70년 동안 세계패권을 유지하여 왔다. 2050년까지 현 수준 이상의 군사력을 유지할 경우 100년 이상 패권을 유지하는 국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부상에 미국이 군사,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 견제와 억제 전략을 펼치며 중국의 도전을 방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경제적 붕괴나 심각한 국가 위기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 일본, 러시아,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은 큰 변화 없이 현상 유지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비록 러시아가 세계 제2위의 강대국 위상 확보를 시도하고, 일본도 미국의 지원과 역내 역할 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30년 힘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사력 증강이 예산 반영에서 확보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20년 소요되는 제한사항을 고려한다면, 2030년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 주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자국 생존을 위한 일정 수준의 군사력 확보 노력과 더불어 추가적인 외적균형에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3) 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 p.192~207.

54) IISS, ASIA-PACIFIC Regional Security Assessment 2021, p. 31.

1.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경쟁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대한 견해로 패권경쟁은 없으며,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에 서 미국을 앞서지 못할 것이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과대평가한 잘못된 상황분석이라는 주장도 있다.⁵⁵⁾ 반면에 중국이 미국과 같은 패권(hegemony)을 추구하지 않고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평등과 협력, 협치, 호혜상생과 이익공유, 다자주의와 포용주의를 추구하는 '신형 초강대국'을 추구한다는 주장도 있다.⁵⁶⁾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트렌드 2040(Global Trend 2040)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다섯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전망하기도 한다.⁵⁷⁾

이러한 미래환경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국의 세계경제 비중의 변화는 2차대전 직후 50%, 1980년대 22%, 2015년 16%, 2040년대 11%로 지속 감소되고, 중국의 비중은 1980년대 2%에서 2015년 18%, 2040년대 30%로 확대를 전망하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군비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은 1980년 후반 이후로 평균 GDP의 2%만 국방비에 사용하는데 미국은 4%까지 증대하여 사용하고 있다.⁵⁸⁾

향후 양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큰 퇴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에서 2030년 미국과 중국의 힘을 비교하여 보면, 미국의 군사력이 236%, 중국의 군사력이 160%로 군사력(전력비, P)의 격차는 76%로 힘의 균형수준 67%보다 높다. 양국의 군사력 격차가 2020년대 121%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미국이 압도적 군사력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2050년에 '세계일류군대'를 건설하고 '중국몽'을 실현이 완성되는 세계를 가정하여 보면, 국제질서는 중국의 국제 리더십, 공산주의 국가가 지배하는 새로운 국제환경과 국제체제가 구축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 환경을 위해서는 중국이 2020년에서 30년을 더 군사력에 집중투자를 하여 미국의 힘을 추월하고 압도적 힘을 보유하여 미국을 통제하거나 세계질서에 개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55) 이춘근,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서울: 김앤김복수, 2016), p. 161.

56) 성균중국연구소 역,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6), 후안강(胡鞍鋼), 民主決策: 中國集体領導體制(2010), p. 290.

57) NIC, GLOBAL TREND 2040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21.), pp. 110~118. 미국의 글로벌트렌드 2040(Global Trend 2040)에서는 다섯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전망하기도 한다. ① 민주주의 르네상스 시대(Renaissance of Democracies, 미국과 동맹국이 주도하는 열린 민주주의 부활 세계), ② 주도 국가가 없는 시대(A World adrift, 'G Zero' 세계), ③ 경쟁적 공존시대(Competitive coexistence, 미국과 중국이 경제성장우선 공조와 정치, 기술 등 경쟁 세계), ④ 다양한 세계로 분리된 시대(Separate silos, 지역 강대국 중심의 경제, 안보 중심의 불력화된 세계), ⑤ 비극과 동원(Tragedy and mobilization, 비정부기구(NGO) 협력하 중국과 EU가 주도하는 세계)로 제시.

58) 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 p. 19. 88.

중국이 7%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미국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미국의 군사력은 최소한 현행이 유지되거나 감소 또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보다 아주 완만한 증가를 하여야 한다. 가령 2010년부터 10년 단위로 군사력 격차가 45%(2010년 166%→2020년 121%→2030년 76%)로 줄어들고 있고,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2050년에 중국이 미국보다 14%의 군사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힘의 전이는 발생하지만 군사력 격차는 중국 우위에서 양국의 힘은 균형을 이루는 상태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압도적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5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힘의 경쟁을 추구한 기간과 추이에서 과거 미국과 구소련은 1965년부터 1990년까지 약 25년, 냉전시기 전체로 보면 약 40년 동안 군비경쟁을 했지만, 구소련의 경제적 한계와 소련연합체제의 붕괴 등으로 패권 확보에 실패하며 중위권 군사력 국가로 후퇴하고 말았다. 미국과 중국의 힘의 경쟁에서 냉전시기 미국과 구소련의 경쟁과 일정부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1965년부터 1990년 사이와 2010년부터 군비경쟁의 추이가 유사성을 보인다. 군비경쟁 기간이 20~40년 이상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구소련 붕괴 이후 경쟁 관계는 30년이 넘었으며, 일본의 GDP를 추월한 2010년부터 군사력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로부터는 10년이 넘는 장기간의 군비경쟁이다. 앞으로도 미중 군비경쟁은 20~30년 이상은 더 지속될 것이지만, 구소련의 급진적인 군비증강이 아니라 중국은 점진적이고 완만한 증강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하며 국가 목표 달성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중국이 '세계일류군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시기에 세계패권 확보는 어려우며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서 힘의 균형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서로를 견제하며 어느 한쪽을 제압할 수 없는 국제 안보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패권국가 없는 국제질서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외적요소인 협력과 동맹 등 우군 확보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 동맹 강화, 그리고 QUAD와 같은 새로운 힘의 협력체 구성 등에 집중할 것이고,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NOTO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진출은 이를 증명하는 사례일 것이다.⁵⁹⁾ 중국 또한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다. 그 예로 '일대일로' 전략에서 추진되는 약 1조 4,000억 달러, 900개 프로젝트는 마샬플랜 12개를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구매력은 세계를 중국의 경제시스템으로 흡수하고 있다.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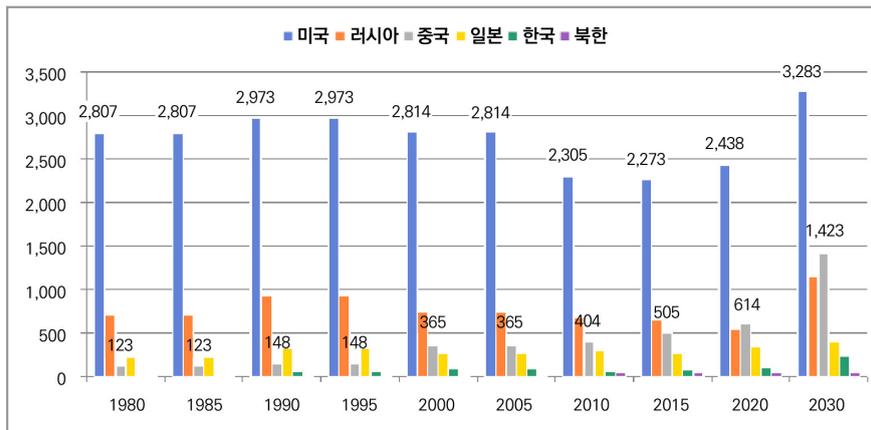
59) David Hutt, "The UK Should Align with Biden in the Indo-Pacific" (14 January 2021). www.rusieurope.eu (검색일: 2021.3.20.)

60) 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 p. 88.

2.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경쟁

주요 국가들의 해군력 변화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도 만만치는 않다.

<그림 3> 주요 국가들의 해군력 현황(단위, 천톤)



* 세부 분석결과는 부록 1, 2 참조.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도식함.

중국의 해군력은 러시아를 뛰어넘어 세계 제2위 수준으로 증강되었지만, 미국의 해군력에 비하면 2020년에 1/4수준, 2030년에는 약 1/2수준(44%)까지 간격을 좁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수치는 1,500톤급 이상의 전투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20년 전체 함정 척수에서는 미국 273척, 중국 333척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해군력은 더 높은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해군력은 2030년대에 미국의 해군력을 추월하지는 못하며, 세계 해양패권 확보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해군력이 현 증강추세를 유지한다면 2050년경에는 미국의 해군력과 유사한 수준을 보유할 것이며, 함정 전체 척수에서는 2015년에 미국을 추월하였고, 1,500톤급 이상 전투함의 수도 2030년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중국이 세계 해양패권을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중국 대륙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중국해와 서태평양 해역에서의 해군력 경쟁은 미국이 우세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며, 비록 해군력의 크기에서는 미국이 크게 앞서지만, 척수에서는 그 반대이다. 따라서 해양에서 경쟁과 갈등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2.1 미국과 중국의 해양력 마찰

과거 미국과 중국의 큰 차이점은 해양국가와 대륙국가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1980년대부터 해양굴기를 추구하며 40년을 넘게 해양국가로 변신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도약적 해군력 건설, 양적 우위 확보로 질적 열세 만회, 대함탄도미사일 등을 이용한 A2AD체계 강화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대륙에 대한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은 유무인 함정의 규모를 증가시켜 양적 불리함 해소, 기술력에 기반한 압도적 질적 우위 유지, 신 작전 개념 발전, 다국적군의 해양 연합체 결성으로 힘을 규합하여 해양패권을 유지한다는 전략이다.⁶¹⁾

중국의 해양굴기는 항공모함의 전력화가 이루어진 2012년이 실질적인 해양강국으로 전환된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구소련이 건조하다가 중단된 항공모함을 구입하여 2002년부터 10년 동안의 재건조를 한 것이지만, 이후 2번함부터는 자체 설계 및 건조하고 있으며 4번함부터는 대형항공모함으로 원자력 추진체계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 상륙헬기모함(LHA)도 건조 중이며, 이 함정에는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이착륙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항공모함과 헬기모함은 미국이 해양패권의 상징으로 국가이익 보호와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항모강습단(carrier strike group)과 상륙강습단(amphibious strike group)과 같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항모 및 상륙 강습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추진 공격잠수함과 이지스형 구축함, 대형 군수지원함 등 다양한 목적의 함정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의 변화에 미국은 해양패권국으로 위상과 해양통제권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① 함대전력을 태평양으로 큰 규모로 전환(6척의 항공모함 지속성 유지와 잠수함 전력의 60%를 배치), ② 태평양에 능력있는 인력과 신형 함정, 항공기 배치, ③ 현행 훈련, 작전, 연습의 발전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협력 유지 및 강화, ④ 계획된 해군력의 증가, ⑤ 신형 함정, 항공기, 무인기, 무기 획득과 군사기술의 개발 가속화, ⑥ 중국 A2AD 대응 해군, 해병대 작전개념 개발, ⑦ 분산된 함대구조로의 변화 등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다.⁶²⁾

그리고 해양력의 운용과 사용 능력에서 미국이 당연히 경험적 우위에 있다. 미국은 70년이 넘는 해양패권을 유지하며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반면, 중국은 한 번도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해양통제권, 해양우세 등 해군력의 전략적 활용과 사용에는 경험

61) 박창권, “미중 해군력 경쟁의 특성과 안보적 시사점”.

62)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pp. 32~33.

이 다소 부족하고 미숙할 수 있다. 비록 중국이 미국의 과거 행동을 모방하며 시행착오를 줄일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의 전략과 능숙한 해군력의 운용에는 경험(experience)과 능력(skill)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의지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작전적 운용은 또 다른 문제이자 시련이며,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구소련의 해군력이 세계 2위의 해군력임에도 그 유용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은 국가적 리더십과 전략적 허약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 리더십과 공산주의 국가 리더십이 해군력의 이점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관점의 차이는 해군력을 이용한 국가이익 수호 활동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갈등과 마찰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2.2 항모 및 상륙 강습단 운용 전망

해군력을 국가전략이나 작전목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고심하며 해군력을 건설해 왔다. 목적과 임무에 따라 단일함에서 대규모 전투단을 구성하여 군사활동이나 행동을 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단위함(battle ship)에서 일정 규모의 전투단(battle group)을 형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규모의 전투함과 잠수함, 전투기, 상륙부대 등 입체적 전력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carrier strike group)이나 상륙강습단(amphibious strike group)을 중심으로 군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다양한 목적과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한 국가와 전쟁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은 항모강습단과 상륙강습단을 각각 11개씩을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국도 2020년 기준으로 2척의 항모강습단을 구성하여 동남중국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후 건조 항공모함은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헬기모함 076급(LHA급)은 40,000만 톤급으로 경항공모함 수준으로 항공기를 탑재하여 상륙강습단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번함이 취역하고 2, 3번함이 진수되었다. 항모와 협동작전을 하는 잠수함, 전투함 등도 서방의 무기체계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고, 성능면에서도 거의 대등하다는 평가다.⁶³⁾

63) *ibid.*, pp. 12~32.

〈표 1〉 2030년경 미국과 중국 항모 및 상륙강습단 구성 전력 비교

구분	미국	중국	비고
항공모함	9~12	5~7	+2~+7
순양함/구축함	63~104	52~60	+3~+52
공격잠수함	66~72	10~14	+52~+62
헬기모함(LHA)	8~12	4	+4~+8

* 출처 : Ronald O'Rourke, "Navy Force Structure and Shipbuilding Pla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RL32665 (21 Jun 2021), p.11.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RL33153 (July 1, 2021), pp. 9~10. ODNI, "2021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해군전력의 핵심인 항모 및 상륙강습전단의 운용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제시한 미래 해군전력을 기준으로 2030년경 미국은 항모강습단 9~12개와 상륙강습단 8~12개로 전체 17~24개의 강습단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은 항공모함 5~7척, 헬기모함 4척으로 총 9~11개의 강습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강습단을 구성하는 순양함 및 구축함 50척 이상, 원자력추진 공격잠수함 10~13척 등 항모 및 상륙강습단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강습단의 수에서 중국이 미국의 약 1/2수준이다.

하지만 활동영역에서 보면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력이 운용되며, 인도-태평양, 중동-아프리카, 유럽 및 대서양 등에 1~3개의 강습단이 분산되어 운용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에 미해군은 남중국해와 태평양에 중국 견제를 위하여 2개의 항모강습단과 1개의 상륙강습단, 총 3개의 강습단을 집결한 사례가 있으며, 1996년 3차 대만해협 위기에는 페르시아만의 항공모함을 이동시켜 2개의 항모강습단과 1개 상륙강습단을 집결하여 중국을 압박하였다. 그리고 1991년 걸프전에서는 4개 항모강습단과 1~2개 상륙강습단 등 5개 강습단을 전개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다. 결국 미국은 최대 6개 강습단, 평시 최대 1~3개의 강습단을 운영하였다.⁶⁴⁾

중국의 강습단은 대륙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함정 가동률이 높아 약 6~7개 강습단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습단의 전체 수에서 미국 많고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나, 인도-태평양 해역을 중심으로 운용 가능한 강습단의 수는 중국이 2배 이상 많을 개연성이 높다.⁶⁵⁾ 전쟁이나 전투에서는 수적 우세가 강점이 더 많다고 할

64) *ibid.*, pp. 32~33.

65) *The Economist*, "China's next aircraft-carrier will be its biggest. The Chinese navy is fast learning how to use them (Jul 3rd 2021)," www.economist.com ; Navy news, "China's New Super Carrier: How It Compares To The US Navy's Ford Class (2 Jul 2021)," www.navalnews.com (검색일: 2021. 8.17.).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는 없지만, 평시나 위기시 장기간 또는 연속된 국가전략과 임무 수행, 분리된 여러 공간이나 장소에서의 다양한 군사활동 등을 고려한다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다. 수적 이점은 상대에게 지속적인 소모전을 강요하고 피로도를 증가시키며, 적시적인 전력의 배치와 운용, 장소의 선점과 주도권 확보 등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미해군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기간 해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나타난 문제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오랜 기간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지상 항공력의 1/3을 항모강습단에서 제공하며, 미해군의 해양통제작전에 대한 전비태세가 지속적으로 저하되었다. 그 결과 2013년 전방전개 항모강습단 비율이 22~25% 수준에서 2018년 평균 15%로 감소하였고, 이는 구조련 붕괴 이후 25년 동안 최저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17년 7함대 이지스 전투함 4척이 심각한 항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유가 바쁜 임무수행(연간 67% 전방전개) 으로 훈련과 교육 부족을 첫 번째 원인으로 분석되어 미해군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⁶⁶⁾

2.3 해군력의 수적비교

해군의 전체적인 성능과 능력, 크기면에서는 미국이 우월하다는 것은 이미 평가되었다. 그러나 전투함의 척수에서 2015년경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였다. 기뢰전함 등 소형 전투함이 모두 포함된 척수이지만, 소형함정을 제외한 상륙함, 연안초계함 등 1,500톤급 이상의 전투함에서도 2020년 중국이 약 240척으로 미국의 전투함의 수보다 많다.⁶⁷⁾

003급 항공모함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5척을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6~10개 항모강습단을 보유하고, 003급 항공모함은 미해군의 항공모함과 크기가 비슷하나, 함재기 탑재능력 차이와 승강기와 사출기가 미항모보다 각각 1개씩이 적어 항공기 소티 창출이 적으나, 항공기 이륙체계를 이전 항모의 증기식 사출체계(steam catapult)에서 전자기식 사출체계(EMALS, 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 설치로 더 빠른 항공기 출격을 지원과 미국의 E-2D(개량형 Awkeye)와 유사한 KJ-600을 탑재하여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역할을 수행 전망,

66) 정호섭, “미 해군의 새로운 전력운용 개념, 항공모함 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양의 평화와 갈등』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9.), pp. 466~467, 497~499.

67) ONI, “Numbers of Chinese and U.S. Navy Battle Force Ships, 2000-2030 Figures for Chinese ships taken from ONI information paper of February 2020,” p. 10. ;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p. 10. ;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p. 10.

〈표 2〉 미래 미국과 중국의 전투함 비교

구분	미국 (미래 해군건조계획)	중국 (2030년 전망)	비고
SLBM	12	8	+4
SSN	66+	13	+53
SS	-	55	-55
CV(L)	9~12	5~7	+2~+7
대형전투함(CG/DDG)	63~104	60	+3~+44
소형전투함(FFG/LCS)	40~52	135	-95~-83
상륙함(LHA, LHD, LPD)	38+	18	+20
합계	228~284	294~296	-66~-12

* 출처 : 미국은 미해군 355척 목표와 바이든 정부의 건조계획을 기준으로 작성. 중국은 “Numbers of Chinese and U.S. Navy Battle Force Ships, 2000-2030 Figures for Chinese ships taken from ONI information paper of February 2020,” p.10. Ronald O'Rourke, “Future Force Structure Requirements for the United States Navy,” (June 4, 2020), pp.10~11.

향후 2030년 이후에도 전투함정의 전체 척수는 중국이 12~66척이 더 많고, 구축함급 이상의 대형 전투함 수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함정의 건조 능력을 살펴보면 중국은 2005~2019년에 119척의 전투함이 순증가 하였고, 이 중 2009년에 유도탄고속함 35척을 확보하며 과거 구형 유도탄고속함을 퇴역시켰다. 2013년부터는 호위함 칭다오(Jingdao, 056급, 1,500톤)급을 연간 7척씩 건조하여 2020년에 50척 이상이 작전에 투입되었고, 2030년까지는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호위함 등 다양함 함정을 확보하며 2025년 400척, 2030년에는 425척의 함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엄청난 함정 건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다수 함정은 항모 및 상륙강습단을 구성하는 전력으로 운용되고, 순양함, 구축함, 그리고 호위함 등은 임무에 따라 다양한 수상전투단(battle group)을 구성할 수 있다. 페르시아만, 인도-태평양, 북극해 등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 중국의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군사활동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어선단들의 불법 어로활동, 대규모 민병대 어선들의 회색전술(Gray tactics) 등과 연계되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이슈(issues)를 야기하며, 미국에게는 감당하기 어렵고 성가신 문제일 것이다. 세계 패권국으로서 다수 국가와 동맹 및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수많은 협력과 도움 요청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으며, 결국 미국의 레드라인(red line)을 넘지 않는 이상 중국의 행동을 묵과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하지만, 수중 능력에서 양국의 잠수함 척수는 유사할 것으로 보이나,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의 경우 미국이 능력이나 척수에서 중국을 압도할 것이다. 미국은 잠수함 전력을 이용하여 중국의 전략 및 수적 이점을 견제하고 압박하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경쟁

중국이 2030년 전후로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더라도 세계를 무대로 미국과 패권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중국의 힘이 대륙을 중심으로 발휘되는 상황에서는 전체 군사력뿐만 아니라 해군력에서도 만만치 않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패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이 세계를 무대로 그 영역을 지속적 확대해 나가고, 일정 지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충분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미국도 예상하고 있다.⁶⁸⁾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군사력의 60% 배치를 가정하여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하여 보면 <표 3>과 같으며, 2020년도는 미국이 17% 우위에 있으나, 2030년도에는 18%가 열세한 것으로, 해군력에서는 2030년 미국이 47%가 우위에 있으나, 전투함 수에서는 중국이 약 100척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도-태평양에서 수 치상으로는 양국의 군사력과 해군력이 우세와 열세가 교차하며 힘의 균형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양국 모두가 압도적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양대 강대국(Bi-Polar) 존재하는 안보환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표 3> 미국 인도-태평양 군사력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

구분		2020년	비교(미국-중국)	2030년	비교(미국-중국)
미국	군사력비(P)	262%	+122%	236%	+76%
	해군력비(P)	305%	+228%	280%	+159%
	전투함(척)	188	+47척	248	-24척
미국 (60%)	군사력비(P)	157%	+17%	142%	-18%
	해군력비(P)	183%	+106%	168%	+47%
	전투함(척)	113	-28척	149	-123척
중국	군사력비(P)	140%		160%	
	해군력비(P)	77%		121%	
	전투함(척)	141		272	

* 출처 : 부록 1, 2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작성.

68) NIC, GLOBAL TREND 2040, pp. 102~103.

미육군은 향후 30년 동안 중국이 글로벌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세계의 자원과 시장 등 통상을 보호하고 있는 한 중국의 군사력은 아시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한국, 일본, 대만 등)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감쇄하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미국의 군사력은 더 광범위하게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은 동등해질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을 직접방어(direct defense)하고 있지만, 남중국해(최소한의 도전), 한국(보통의 도전), 대만(보통-높은 도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에 중국이 배치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등 반접근체계(anti-access systems)로 인해 중국 주변에서 미국의 이익을 직접방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 이라 전망하고 있다.⁶⁹⁾

그리고 양국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환경에서도 3가지 핵심 비대칭성(asymmetries), 거리(distance), 시간(time), 이익(stakes) 측면에서도 미국이 불리하다.⁷⁰⁾ 중국과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대만해협, 동남중국해, 동북아시아 지역 등은 미국으로부터 수백, 수천 마일 떨어진 거리이고, 장기간에 걸친 분쟁은 미국에게 더 크고 많은 시련이 존재하며, 미국 본토와 원거리 이격된 상태에서 힘의 운용을 위해서 해양이나 동맹국 또는 협력국을 모기지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협조는 절대적이다. 그리고 중국 인근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은 미국보다 중국에게 더 사활적이며, 미국은 더 큰 글로벌 이해관계를 위협에 빠뜨릴 만큼 중요하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 국가들의 이익손실과 미국의 힘에 대한 의구심 증가와 신뢰성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강대국이 존재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과 안전,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의 힘을 끊임없이 증가시키며, 동맹, 협력, 편승 등 다양한 국가행동을 선택하거나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hegemonic China)으로 중국의 힘이 더욱 강화되고, 중국의 공격적 행동이 증대되면 될수록 많은 국가들이 지역 안보동맹에 더 매력을 느낄 것이라 보는 측면도 있으나, 중국의 무력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등으로 예측 불가한 안보환경이 된다면 동맹과 협력의 약화로 이어져 한국, 일본 등이 자국 생존을 위한 핵무기 보유 정책을 추진하며 통제 불가능한 환경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⁷¹⁾

결국 미국이 완전한 힘의 지배를 이루지 못하는 아시아에서 중국이 레드라인(red

69) Terrence K. Kelly, *The U.S. Army in Asia, 2030-2040*, pp. 8~10.

70) *ibid.*, pp. 61~65.

71) 박창권, '미중 해군력 경쟁의 특성과 안보적 시사점', p. 4.

line)선을 넘지않는 지역패권을 인정하며 견제 및 억제하는 전략에 집중하며, 힘의 정면충돌을 방지하고 위험관리를 하며 묵시적 합의로 중국을 지역패권으로 인정하는 상황도 고려될 수 있다. 예로 과거 오바마정부 시절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 공세적 정책을 저지하지 못하고, 중국의 해양정책을 용인하였다는 사실을 아시아 국가들은 경험하였다.⁷²⁾

4. 냉전시기와 유사한 양대 세력권의 대립

양대 세력권의 대립이란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동맹을 통하여 국가의 힘을 강화하는 외적 노력으로 국가군을 형성하여 상대에 대응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 경우 위협의 정도, 동맹국의 외교, 경제, 군사적 협력관계 등 많은 요소가 동맹의 결속력 (alliance cohesion)에 영향을 줄 것이며, 결속력의 수준에 따라 세력군의 힘의 강도와 대립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다.

냉전시기 미국 중심의 민주진영과 구소련 중심의 공산진영 간에 끊임없는 힘의 대립과 경쟁을 벌이며, 구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반민주 국가 규합을 위한 공산권 국제 리더십이 부재하던 시기가 지나 2000년대 중국이 부상하며 새로운 세력 연대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 시기의 힘의 연대는 동맹에 아닌 이데올로기적 이념에 기초한 협력 수준이었다.

과거 냉전시기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힘의 연대 가능성으로 중국-러시아-북한 벨트와 미국-한국-일본 벨트 간의 힘의 대립 가능성이다. 아직은 명확한 형태나 결속력을 가지고 연대하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지만, 바이든정부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새로운 위협으로 명시하며 서방을 중심으로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시진핑과 푸틴은 전략적 관계 강화와 군사적 협력도 증대하고 있어 새로운 냉전의 구도를 예견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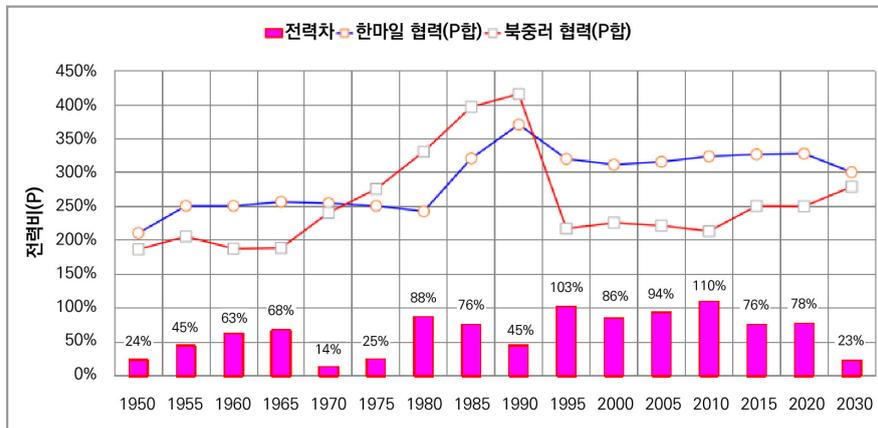
하지만 힘의 연대에 대한 비관적인 측면도 많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을 말하고 있지만, 양국은 역사적으로 긴 국경을 맞대고 과거 이익충돌의 경험과 유럽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 등 내면적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이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도 핵 및 WMD 무기 등 국제사회와 연계된 국가의 이익에서 협력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한국도 한미 또는 미일 동맹은 갈등 속에서도 신뢰와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오랜 역사적 충돌 경험과 국가 간의 깊은 감정의 골, 국가이익 갈등 등 첨예한 걸림돌로 대립하고 있으며 출구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당장 강력한 동맹의

72) *ibid.*, p.4.

결속력을 가진 세력권 형성이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대 세력권 형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제 안보환경이 국가 생존에 선택을 요구하는 현실에 직면한다면 오랜 역사적 사례가 증명하여 주듯 힘의 협력이나 동맹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력균형이론에서 국가 간에 다양한 경우의 수로 힘의 협력을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힘의 결속력을 가정한 미국 중심의 일본, 한국과 중국 중심의 러시아, 북한이 세력권을 형성하여 힘의 비교를 하여본다. 양대 세력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미국·일본·한국 vs.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력(P) 비교



* 세부 분석결과는 부록 1, 2 참조.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도식함.

미국진영의 군사력이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압도적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 이후부터 양대 세력 간에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대등한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록 2030년에도 미국진영이 23% 정도 우세하였으나,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1970대와 같이 힘의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동안 양대 세력이 힘을 규합한 상태에서는 서로를 굴복할 수 없는 상태가 유지되며 군비경쟁이 지속되는 냉전시기와 유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냉전시기 동안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보다 양대세력의 힘이 대립하는 점점에서 한국전쟁, 대만해협갈등, 베트남 전쟁 등과 같은 대리전 형태와 유사한 힘의 충돌 가능성과 직접 충돌보다 위험(risk)이 적은 소규모의 갈등, 분쟁 등의 소규모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20년 말 중국이 선포한 국방법은 공산당의 전쟁 개시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이익과 발전이익에 피해가 발생할 때 무력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해경법 발효도 타국의 정부 선박까지도 단속과 무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어 이해충돌로 인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5. 한국의 생존과 안전

현재는 미국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 패권을 유지하고 있고, 미래에도 미국이 힘의 우위 유지에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도 만만하지는 않으며 아시아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월등한 우세가 전망되지는 않는다. 미래 두 강대국이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안보환경에 놓일 개연성이 높다.

세력균형에서 주장하듯 내적균형(internal balance)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자국의 힘만으로 복잡한 국제환경에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외적균형(external balance)을 위한 동맹과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냉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패권국 미국과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대북한 위협에 집중하며 국가의 생존과 안전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으로 한미동맹에서 역할도 증대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과거 편승에서 동맹으로서 역할을 증대하며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갈등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이 과거와 같이 북한 위협에만 집중하며 국제사회의 역할을 무시할 수도 없으며, 국제사회도 선진국인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QUAD, 인도-태평양 전략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일본과도 화해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북한 위협에만 집중하는 상황이다. 과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가 한국이 희망하는 대로 북한 위협이 한반도에만 국한되고 관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군사력에서 2020년 군사력비가 한국 34%, 일본 33%, 북한 41%로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이나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무시수준의 군사력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한 2030년도에는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사적 경험에서 무시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는 독일과 같이 강력한 힘의 증강으로 독자적 생존을 추구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는 국가는 강대국에 편승 또는 힘의 연대를 통하여 국제환경에서 생존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현실에서 생존을 위한 한국의 국가행동도 힘의 증강과 힘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국방개혁을 통한 엄청난 국방비의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중국과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하다. 그렇다고 한국이 일본과 힘의 연대를 할지라도 중국과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중국과 연대하는 방법도 있으나 북한이라는 적대세력이 중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은 거의 없다. 결국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을 미국-한국-일본의 협력이 최선이나,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문제와 정치문제 등으로 완전한 힘의 연대가 어려운 현실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필수 불가결한 선택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체제는 위협에 대응하는 범주가 국제질서, 즉 동북아시아나 인도-태평양까지도 포함하느냐의 문제는 한국이 고심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세계패권을 유지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완전한 패권을 유지 못하는 상황에서 힘의 연대를 위한 한국의 군사력 수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의 군사력 수준은 무시수준으로 힘의 협력은 편승개념이며, 일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시수준 이상의 군사력은 유지해야 협력, 동맹이란 의미에서 국가의 의지와 주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다양한 국가 간의 이해 상충 문제에 개입을 확신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수준의 군사력은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서남해의 중간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방공식별구역(KADIZ), 해상 교통로(SLOC) 보호 등은 한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이지만, 미국의 개입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의 생존과 안전의 우선은 군사력의 확보이며, 이와 더불어 힘의 동맹 및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과거 수십 년간 국제적 존재감이 상승하며 2020년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유난히 국제 안보에서 국가의 역할이 적다는 시각과 한국이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로 중국이 인식하고 동맹 약화 및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추구한다는 견해도 있다.⁷³⁾

한국이 국가 생존과 국제질서에 역할을 위해서 군사력으로 경항공모함강습단, 상륙강습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의 확보도 한국의 자강과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충분하다. 미래 힘의 대립과 갈등의 장소가 해양일 가능성에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73) IISS, ASIA-PA^{CIFIC} Regional Security Assessment 2021, pp. 45~46.

V. 결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만에 철수하며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했다. 미국은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군대를 무장시키고 교육하고 체제를 구축하였다. 국가의 생존과 안전은 그 국가의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 냉혹한 국제현실에서 국가는 끝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생물처럼 행동해야 한다. 개인의 생존과 같이 국가의 생존도 힘에 의존해야 한다. 힘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지, 경제력, 국제간의 공조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하지만 국가 힘의 원천은 국가의 생존이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강제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를 억제, 통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국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유해야 하는 것이 물리적 힘, 군사력이다. 군사력은 험난한 국제질서에서 국가 생존의 원천으로 다양한 국가행동의 선택적 융통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에서 많이 보았다.

미래 미국은 세계패권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힘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고 미국은 성가신 도전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경쟁자(competitor)인 중국이 국제질서 변경을 용인할 의사가 없으며, 중국도 국가의 사활적 이익에 조금도 물러설 의사가 없고, 2035년 군현대화 완성과 2050년대 건국 100주년, '세계일류군대' 건설이 목표다.

미국은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끝내고 다시 정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의 재배치와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환과 힘의 증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힘의 마찰과 갈등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두 강대국으로부터 동북아시아 국가는 더 많은 요구와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한국의 현 상대적 군사력 수준은 북한, 일본과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나, 과거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지역패권을 중국과 경쟁하는 안보환경으로 변화가 전망된다. 과거 북한만을 위협으로 자강하기에는 다른 환경이라는 상황인식이 절실하다. 힘의 협력과 연대는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으며, 미국,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미국의 이탈은 심각한 힘의 불균형 상태를 유발하여 위험한 환경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사회의 불신과 불확실성, 오산(miscalculation)과 오판의 위험성(risk)을 줄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힘의 갈등은 해양을 통하여 발생할 개연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 과거 해양력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가 생존과 자강을 유지한 역사적 사례도 많다. 한국해군의 경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의 확보는 미래 전략적 레버

리지와 최소한의 국가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필요성은 충분하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주변국이 선불리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수준의 해군력 건설은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내적요소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저서

- 이춘근,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서울: 김앤김복수, 2016.
- 해양전략연구소, 『2020~2021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전망』, 서울: 박영사, 2021.
- _____, 『동아시아 해양의 평화와 갈등』, 서울: 박영사, 2019.
- 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 서울: 세종서적, 2018,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 성균중국어연구소 역,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6.
후안강(胡鞍綱), *民主決策: 中國集体領導體制*.
- Casella, G., *Statistical Inference* 2nd ed. Duxbury, 2002.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6thed: Alfred A. Knopf, 1973.
- IISS, *ASIA-PACIFIC Regional Security Assessment 2021*: UK, 2021.
- _____, *The Military Balance 2020*: UK, 2021.
- Waltz, Kenneth N., *Man,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59.
- _____,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liforni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 MOD, *2020 DEFENSE OF JAPAN*: MOD, 2020.
- NIC, *GLOBAL TREND 2040*: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21.
- Walpole, R. E.,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s and Scientists* 9th ed: Pearson, 2012.
- Kelly, Terrence K., *The U.S. Army in Asia, 2030-2040*: RAND, 2014.

2. 논문

- 강석울, “동북아 안보정세분석(NASA),” KIDA, 2020.
- 김강녕, “중국의 해양팽창정책과 한국해군의 대응방안,” 『해양전략』제178호, 합동대학, 2018.
- 김명수, “세력균형(power balance)에서의 군사력 수준과 동북아시아에 주는 함의,” 『STRATEGY21』Vol.18 No.3,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5.
- _____, “세력균형과 상대적 군사력 수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3.
- 박창권, “미중 해군력 경쟁의 특성과 안보적 시사점,” 국방논단 제1852, 한국국방연구원, 2021.
- 이기종,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대회안보협력,” 『亞太研究』, 경기대학교, 1996..
- 정호섭, “미 해군의 새로운 전력운용 개념, 항공모함 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

- 양의 평화와 갈등』, 해양전략연구소, 2019.
- Paskal, Cleo, “Indo-Pacific strategies, perceptions and partnerships (23 March 2021),” www.chathamhouse.org. (검색일: 2021.8.14.)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to congress on the Annual Long-Range Plan for Construction of Naval Vessels for FY2019,” www.secnav.navy.mil. (검색일: 2020.9.12.)
- Department of Defenc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2010),” www.defense.gov. (검색일: 2020.2.5.)
- Klimenko, Ekaterina, “Russia’s new Arctic policy document signals continuity rather than change(2020),” www.sipri.org. (검색일: 2021.8.20.)
- Comley, Heath A., “The Diversity of Russia's Military Power(2020).” www.csis.com. (검색일: 2021.9.10.)
- O'Rourke, Ronald,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2021),” www.crsreports.congress.gov. (검색일: 2021.8.20.)
- _____, “Navy Force Structure and Shipbuilding Pla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RL32665(2021),” www.crsreports.congr. (검색일: 2021.7.30.)

3. 기타 자료

- 국방부, 『2020 국방백서』(국방부, 2020).
- _____,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국방개혁 2.0」: 국민과 함께합니다.』(국방부, 2019.2).
- _____, “'21-'25 국방중기계획 정책브리핑,” www.korea.kr. (검색일: 2020.10.20.)
- _____, “국방개혁2.0 강한군대 책임국방 구현,” www.mnd.go.kr.
- 김주환, “中 군비확장 대응해 韓·日 항모확보 검토…F-35B 탑재,” 『동아일보』, 2018.2.14. www.sedaily.com. (검색일: 2021.9.28.)
- 윤완준, “中 군사력 확장에 日-호주-인도 맞불… 아시아 군비경쟁 불붙다,” 『동아일보』, 2018.8.28. www.donga.com. (검색일: 2021.9.28.)
- 최서윤, “아베, 11월 호주방문해 자위대, 호주군 협력 강화...내년 국방비 사상 최고,” 『아시아투데이』, 2018.8.22. www.sedaily.com. (검색일: 2021.9.28.)
- Staalesen, Atle, “Putin signs Russia's new Arctic master plan(2020),” www.arcticody.com. (검색일: 2020.3.6.)
- Hutt, David, “The UK Should Align with Biden in the Indo-Pacific” (14 January 2021). www.rusieurope.eu. (검색일: 2021.3.20.)
- Albert, Eleanor,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2020),” www.cfr.org. (검색일: 2021. 8.15.)
- Shim., Elizabeth, “North Korea could have 40~50 nuclear weapon, think tank

- says," Woldr news(14 June 2021.), www.upi.com. (검색일: 2021.3.10.)
- Global Times, "China releases report on US military presence in Asia-Pacific, warns of increased conflict risk" (Jun 21, 2020), www.globaltimes.cn. (검색일: 2021.1.15.)
- Nah, Liang Tuang, "The Tactical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Military Modernization" (Jan 27, 2021), www.thediplomat.com. (검색일: 2021.3.18.)
- The Economist, "China's next aircraft-carrier will be its biggest. The Chinese navy is fast learning how to use them" (Jul 3rd 2021), www.economist.com. (검색일: 2021.8.15.)
- USNI news, "CNO Gilday: Flat or Declining Navy Budgets 'Will Definitely Shrink' the Fleet" (Jun 15, 2021). www.news.usni.org. (검색일: 2021.9.5.)
- _____, "Work: Sixty Percent of U.S. Navy and Air Force will be based in Pacific by 2020" (Sep 30, 2014), www.news.usni.org. (검색일: 2021.1.15.)
-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 "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と在日米軍駐留経費負担の在り方 ― 第204回国会(常会)における防衛論議の焦点―"(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特別調査室, 21.7.30.), www.sangiin.go.jp. (검색일: 2021.9.28.)

부록1. 각국의 군사력 현황과 2030년 전망

1. 국방비(단위, 억\$/GDP 대비 비율)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GDP 대비 (GDP 성장률)	2030년 국방비 추정
한국	364(2.26)	340(2.23)	351(2.20)	382(2.28)	3(2)	622
미국	5,896(3.25)	5,934(3.17)	5,987(3.07)	64,333(3.14)	3.5(2.5)	8,420
중국	1,424(1.27)	1,437(1.28)	1,515(1.26)	1,682(1.25)	1.3(7)	3,555
일본	411(0.94)	465(0.94)	457(0.94)	473(0.93)	1(1.5)	786
러시아	522(3.82)	455(3.46)	457(2.90)	453(2.88)	3.5(1.5)	840
북한	62.5(16)	46.0(16)	44.5(16)	45.5(16)	16(-)	75

* 관련근거

- 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2030년 국방비 전망은 2020 국방통계연보(2020. 12., 국방부). p.31. www.mnd.go.kr.를 참조하여 2030년 국방비를 전망. IISS, Military Balance 2017~2019년 참조.
 나. 북한의 국방비는 10~75억 불까지 다양하게 예측하였으며, 여기서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하였음. 아래 표는 북한 국방비 추정치임. 2030년 경제성장이 정상적으로 가정하여 최대치 75억\$로 산정.

년도	국방비 추정 (억US\$)	GDP대비 비율 (%)	GDP 추정 (억US\$)	GDP 성장률 (%, 한국은행)	비고
2010	40.8	16	254.7	-0.5	1991년과 동일 수준
2011	41.1	16	256.8	0.8	
2012	41.6	16	260.2	1.3	
2013	60.2	22.9	263.1	1.1	
2014	42.5	16	265.7	1.0	
2015	62.5	23.8	262.8	-1.1	GDP 308,050억원
2016	46.0	16	288.0	3.9	
2017	44.5	16	277.9	-3.5	

- ① www.en.wikipedia.org/wiki/Economy_of_North_Korea 북한의 GDP 성장률과 예측치를 한국은행의 통계를 근거로 제시함. The South Korea-based Bank of Korea estimated that over 2000 to 2013 average growth was 1.4% per year. It estimated that the real GDP of North Korea in 2015 was 30,805 billion South Korean won.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0.5%	0.8%	1.3%	1.1%	1.0%	-1.1%

- ② www.nationmaster.com 2013년 국방비 GDP/ 22.9%, nautilus.org “North Korea in 2014: A Fresh Leap Forward Into Thin Air?” 2014년 GDP 16%,

www.newsweek.com “What North Korea's Military Looks Like Compared to the U.S.”에서 북한의 국방비를 GDP의 16%로 예측함. www.statista.com 에서 북한의 2012~15년 국방비는 GDP 대비 평균 15.9~16%.

- ③ www.upi.com World News “North Korea under reporting defense spending, analyst says” 북한 평양방송을 인용하여 2015년 국방예산을 12억 \$까지 예측함. 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 “N. Korea spends quarter of GDP on military from 2002-2012: US data”. According to the State Department's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15 report, the North's military expenditures averaged about \$4 billion a year. That accounts for 23.8 percent of the country's average GDP of \$17 billion during the period. North Korea's 2012 military spending came to \$3.85 billion, 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 에서 북한의 2018년 국방비를 75억 불로 예측함.
- ④ 북한 국방비의 추정은 2015년 한국은행(www.bok.or.kr)의 북한의 GDP 추정치를 기준으로 역산출하여 계산함. 2015년 북한 GDP 308,050억 원/1,172원 (2015년 환율)=262.8억US\$이며, 북한 국방비는 GDP 대비 23.8%로 추정함. 그리고 en.wikipedia.org/wiki/Korean_People's_Army에서 북한 2012년 국방비(military expenditure)로 북한 6US BnUS\$로 명시.

2. 전체병력(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망기준	2030년 전망
미국	1,348,400	1,359,450	1,379,800	이전 수준	1,350,000
러시아	900,000	900,000	900,000	이전 수준	900,000
중국	2,035,000	2,035,000	2,035,000	이전 수준	2,000,000
일본	247,150	247,150	247,150	이전 수준	247,000
한국	625,000	625,000	599,000	국방개혁 2.0	500,000
북한	1,280,000	1,280,000	1,280,000	이전 수준	1,280,000

* 관련근거

가. 한국 : 국방개혁 2.0에 따라 향후 병력을 50만까지 축소 발표

나. 미국 : 병력 변화의 정책이 특이사항 없이 현재 수준 유지 전망

다. 러시아 : 2000년대부터 푸틴의 군현대화 계획에 따라 병력을 축소하여 100만 이하로 유지

나. 중국 : 시진핑 주요 병력 200만 수준을 목표로 개편 추진. '17년부터 육군중심에서 육군 30만 명을 줄이고 해군 30만, 해병대 10만까지 확대 예정을 발표. 중국 중앙통신('17. 3. 6.),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17. 3. 13.). 병력의 전환은 있으나 현재와 동일 수준 유지 전망.

다. 일본 : 현 병력 유지, 질적으로 우수한 최첨단 전력 강화에 중점.
 라. 북한 : 현 병력 수준을 유지 평가.

3. 해군 전투함정 톤수(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망기준	2030년 전망
미국	총톤수	2,267,504	2,384,980	2,438,017	* 미해군 355척 목표	3,283,134
	총척수	175	179	188		248
	잠수함	68	67	67		78
	수상함(FF이상)	107	112	121		170
러시아	총톤수	715,428	607,378	558,137	* 러시아 함정건조계획	1,153,785
	총척수	96	93	82		164
	잠수함	62	58	49		76
	수상함(FF이상)	34	35	33		88
중국	총톤수	578,843	605,872	613,954	* 미국 전망자료	1,422,908
	총척수	145	146	141		272
	잠수함	62	59	59		68
	수상함(FF이상)	83	87	82		204
일본	총톤수	311,878	326,022	340,166	* 방위백서 등	405,692
	총척수	66	69	72		88
	잠수함	19	20	21		22
	수상함(FF이상)	47	49	51		66
한국	총톤수	108,356	113,403	113,403	* 국방백서 등	248,236
	총척수	49	48	48		64
	잠수함	24	22	22		27
	수상함(FF이상)	25	26	26		37
북한	총톤수	48,048	48,048	48,048	* 공개자료 등	51,096
	총척수	75	75	75		77
	잠수함	73	73	73		73
	수상함(FF이상)	2	2	2		4

* 관련근거

가. 미국 : Report to congress on the annual long-range plan for construction on naval vessels for fiscal year 2017(Jul. 9, 2016). ; An analysis of Naval's fiscal year 2017 shipbuilding plan(21 Feb 2017).을 참조하여 305척을 기준을 작성하였으며, 기존 톤수에 미달하는 지원함 34척은 제외함.

나. 중국 : 다양한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여 2030년을 전망함.

다. 러시아 : 해양전략연구소, 『2020~2021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전망』(박영사, '21.5.25.), p.179~193. 2030년까지 주력함정 확보계획. 항공모함 및 헬기 모함 4척, 호위함 20척, 초계함 35척, 유도탄함 5~10척, 상륙함 6척, 잠수함 30척 등

라. 일본 : 2020 DEFENSE OF JAPAN(2020. 9. MOD), 215~223.

마. 한국 : 『2020 국방백서』; 박수찬, "해군이 구상하는 2030년대 큰 그림은 '대양함대' (2020. 2. 1. 세계일보), www.segye.com. 호위함(FF)과 초계함(PCC) 퇴역으로 경함공모함 1척, 신형 호위함(FFX, 3,500톤급) 6척, 차기 이지스함 3척,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6,000톤급) 6척, 차기 잠수함(KSS-III 3천 톤급) 6척 등.

4. 전투기 대수(단위, 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망기준(5년평균)	2030년 전망
미국	2,920	2,925	2,935	2,944	2,944
러시아	1,468	1,516	1,476	1,426	1,426
중국	2,771	2,798	2,921	2,728	2,728
일본	542	547	546	550	550
한국	545	545	545	572	572
북한	1,472	1,487	1,498	1,461	1,461

* 관련근거 : 10년간 전투기 수를 계산하여 본 결과 수적으로 유사하며, 사업이 10주기로 진행되고, 항공기 수명 주기 고려 5년 평균을 2030년 적용(기존 항공기를 신형 4~5세대 전투기로 대체하며 질적으로 성능이 향상되며, 수적으로는 유사 수준으로 판단함.).

부록2. 군사력 분석 결과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표준편차	2030	
군사력 비 (Pa)	미국	2.78	2.71	2.64	2.60	2.62	2.60	2.58	2.53	2.57	2.62	2.63	0.07	2.36
	러시아	0.89	0.90	0.81	0.79	0.73	0.72	0.73	0.79	0.75	0.69	0.78	0.07	0.78
	중국	1.13	1.17	1.27	1.33	1.39	1.41	1.40	1.39	1.40	1.40	1.33	0.10	1.60
	일본	0.28	0.31	0.33	0.32	0.31	0.33	0.33	0.32	0.32	0.33	0.32	0.01	0.32
	한국	0.30	0.29	0.33	0.33	0.33	0.33	0.33	0.34	0.34	0.34	0.32	0.02	0.33
	북한	0.39	0.39	0.40	0.39	0.39	0.39	0.40	0.41	0.41	0.41	0.40	0.01	0.42
	평균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00	0.97
군사력 표준값 (Za)	미국	1.48	1.46	1.45	1.43	1.42	1.40	1.39	1.38	1.39	1.39	1.42	0.04	1.34
	러시아	-0.03	-0.03	-0.15	-0.18	-0.25	-0.26	-0.24	-0.19	-0.22	-0.26	-0.18	0.09	-0.21
	중국	0.36	0.41	0.51	0.56	0.61	0.62	0.62	0.62	0.63	0.63	0.56	0.10	0.78
	일본	-0.81	-0.78	-0.77	-0.76	-0.75	-0.74	-0.76	-0.80	-0.79	-0.77	-0.77	0.02	-0.82
	한국	-0.70	-0.73	-0.70	-0.69	-0.68	-0.69	-0.69	-0.71	-0.70	-0.70	-0.70	0.01	-0.76
	북한	-0.51	-0.52	-0.54	-0.55	-0.54	-0.54	-0.53	-0.51	-0.50	-0.49	-0.52	0.02	-0.55
	평균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79	-0.04
한미일 협력 vs 북중러 협력	한미일 군사력 (P합)	3.36	3.31	3.29	3.26	3.27	3.26	3.25	3.20	3.23	3.28	3.27	0.05	3.01
	한미일 표준값 (Z합)	-0.01	-0.02	-0.01	-0.01	-0.00	-0.01	-0.02	-0.04	-0.03	-0.03	-0.02	0.01	-0.08
	북중러 군사력 (P합)	2.41	2.46	2.48	2.52	2.51	2.52	2.53	2.59	2.56	2.50	2.51	0.05	2.79
	북중러 표준값 (Z합)	-0.06	-0.05	-0.06	-0.06	-0.06	-0.06	-0.05	-0.03	-0.03	-0.04	-0.05	0.01	0.01
	군사력차 (P)	0.95	0.85	0.81	0.74	0.76	0.74	0.72	0.61	0.67	0.78	0.76	0.10	0.21
	표준값차 (Z)	0.05	0.03	0.06	0.05	0.06	0.05	0.03	0.01	0.00	0.01	0.03	0.02	0.09

〈Abstract〉

**A Study on the Balance of Power and Changes
in Military Strength in Northeast Asia:
Prospect of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in 2030
Based on the Balance of Power Theory**

Kim, Myung-soo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distribution of power in Northeast Asia based on the balance of power theory, a representative theory of realism, assuming military capabilities as the core power of states.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on the balance of power and military forces are reviewed and used to analyze changes in the strength of the US, China, Russia,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rough 2020 to predict the security environment in 2030.

In the balance of power theory, if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a nation or a group of powers collapses, the possibility of war is high, and to surviv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high uncertainty and distrust, the theory predicts that states must increase their powers in a self-help world and strengthen cooperation and allianc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re also continuing to strengthen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nd countries neighboring China are paying keen attention and remaining vigilant due to the rapi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fter the rapid rise of China. To mark the future 100th anniversary of the Chinese armed forces in the 2030s, China aims to realize 'defense and military modernization' and build a 'world-class military force' by the nation's 100th anniversary in the 2050s. The US is busy checking China's rise by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lliances.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power dynamics in Northeast Asia are slowly changing as the US and China continue to compete for global hegemony. The changes and implications of the distribution of power in Northeast Asia after 2030 are examined based on the balance of power theory.

Key Words: balance of power, military power, defense expenditure, army, navy, air force